

#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잔걸음’

### 산업부 무탄소 기술 공모 선정 410억원 투입...탄소중립 실현 ‘전남경제 중심축 지속성장 기반’

전남경제의 중심축인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4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납사분해공정(NCC)의 기존 열공급 연료인 LNG, 메탄 등을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친환경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파일럿 설비를 통해 실증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10억원으로 국비 293억원, 민자 117억원이다. 2028년까지 4년간 여수국가산단 중심으로 추진된다.

납사분해공정은 원유에서 추출한 납

사를 고온(800℃ 이상)으로 가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추출하는 대표적 석유화학 공정이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 물질인 메탄 등이 가열원으로 사용돼 전체 석유화학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열공급 연료를 무탄소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사업은 기존 납사분해공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납사분해공정 친환경 전환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연소기 개발 △납사 열분해 공정 실증과 상용급 납사분해공정 파일럿 공정 설계 △납사분해공정의 안정성과 환경·경제성 분석과 무탄소 연료공급 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한다.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납사분해공정의 탄소중립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산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부처님 오신 날 헌화



강기정 광주시장이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인 지난 5일 서구 무각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헌화 후 합장하고 있다(왼쪽).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제공

업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수산단의 대표 석유화학 플랜트회사인 ㈜용호 기계기술이 주관으로 공모에 선정돼 파일럿 설비구축 등 무탄소 연료 기반의

새로운 납사분해공정 기술 확보가 가능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전남경제의 중심축으로, 위기를 기회

로 바꾸기 위한 친환경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실증을 넘어 석화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석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함께 국가공모사업을 계속 유지해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 ‘오월 광주’ 전시·공연·축제 풍성

### 발레·연극·미술 특별전

‘2025 광주방문의 해’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오월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발레단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17일 오후 3시 정기공연 DIVINE(디바

인)을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관객참여형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무대에 올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10월 19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소년이 온다’ 특별전을 연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오는 25일까지 특별기획전 ‘단색화: 무한과 유한’전을 연다.

축제, 공연, 스포츠, 전시,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합 브랜딩한 ‘G-페스타 광주’도 확대, 운영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5월 17~18일) △제60회 광주 시민의 날(5월 24일) △무등올림픽 축제(5월 24일) △광주국제인문워크(5월 13~15일) △무등산 인문축제(5월 31일~6월 1일) 등이다. 길용현 기자

## “전남 섬 여행, 초대형 크루즈서 즐기세요”

### 6월 1일까지 전국 첫 운항 여수 밤바다·일출 등 경협

전남도는 6일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을 위해 초대형 크루즈선을 시범 운항,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남 섬 밤바다 크루즈’는 오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여수에서 출발, 다음 날 11시까지 1박 2일 동안 금오도, 거문도, 백도 등 전남의 아름다운 섬을 항해하는 전국 최초 섬 크루즈 여행이다. 모두 4차례 운행되며, 1회 운항에 250~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날에는 금오도, 안도, 연도, 백야도, 개도, 제도 등 다도해 섬 경관의

색다른 매력을 제공한다.

바다 한가운데서 맞는 노을,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과 별밤 감상, 불꽃놀이, 선상포차, 디너 뷔페, 오션뷰 객실 등 각종 크루즈 서비스를 진행한다.

둘째 날엔 항일암 앞바다 해돋이 포인트로 이동, 다도해 일출을 감상한 뒤 전남의 아름다운 섬인 나로도, 금당도, 거문도, 백도 등을 경유한다. 구체적인 항 일정은 기상 상황, 항로 사정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크루즈 투어를 참여한 관광객은 섬 크루즈 투어를 즐기며, 선상에서는 불꽃놀이, 공연, 별밤 보기를 비롯해 오션뷰 객실, 디너뷔페 등 여행과 리조트가 결합한 국내 유일의 섬 크루즈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

전남 섬 밤바다 크루즈선은 2만

2,000급 팬스타드림호다. 총 115개 객실을 비롯해 편의점, 사우나, 마사지룸, 노래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스탠다드룸부터 로얄 스위트룸까지 다양한 객실이 있으며, 디너 뷔페와 조식을 무료 제공한다. 전남도민은 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매는 팬스타크루즈와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안크루즈 여행이 전남 관광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내년에는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에게 크루즈체험을 확대하고, 크루즈선을 해상호텔로 이용해 색다른 숙박시설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광양 덕례·도월 개발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4400억대 주택단지 조성

전남도는 6일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소망·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세대, 1만4,000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고 과도한 땅값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전남도, 관광숙박 시설 특별 안전점검

### 시군·소방본부 등 합동

전남도가 완도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오전 6시 56분께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 가스 객실 내부로 유입되면서 투숙객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속한 구조 조치로 당일 오후 모두 호전돼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관광숙박시설 421곳과 일반숙박시설

2,200여곳,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어린이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등 1,500여곳에 대해 가스·전기·소방

시설 등 분야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시군, 소방본부, 가스안전공사와 시공사,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객실 내 가스·전열기 안전상태 △비상 대피동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가스누출과 경보기·비상 차단장치 작동 여부 등이다.

100객실 이상 보유 관광숙박시설 19곳의 경우 도와 시군, 소방본부, 가스안

전공사가 합동으로 5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402곳은 시군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가정의 달 연휴에 발생한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철거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숙박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인생을 맛있게 농심

환상적 밸런스의 매콤꾸덕함!

# 신라면툰바

후툰바 라면 Toomba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해 신라면 투움바 레시피 맛 그대로!